

동물관련 표제음악을 활용한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 지도방안

유 승 지

목차

- I. 들어가는 글
- II. 동물관련 표제음악 분석과 적용
 - 1. 동물관련 표제음악 분석
 - 2. 동물관련 표제음악의 적용
- III.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 부록

- 논문접수일 (9월 20일), 수정일 (11월 19일), 게재확정일 (11월 30일)

I. 들어가는 말

대부분의 음악 전공자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악기를 연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연주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즉흥연주 능력도 체계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는 음악교육에서 즉흥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즉흥연주 시험에는 작곡, 편곡 외에 전통 화성 및 비 조성음악에 기초한 즉흥연주, 이미지 즉흥연주, 유리드믹스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게임을 위한 즉흥 연주, 그림을 위한 즉흥연주, 그리고 움직임을 위한 즉흥 연주¹⁾ 등 다양한 즉흥연주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배우는 과정은 화성 패턴 익히기, 노래 반주, 전조 등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즉흥연주 수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브람슨(Robert M. Abramson, 1928-2008)은 “모든 움직임은 소리로 표현될 수 있다 [...] 음악교육을 통해 소리와 움직임의 관계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연주 역량을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²⁾고 하였는데,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움직임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악보에 표기된 상징들을 음악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어 음악해석능력도 향상된다.

다시 말해서 달크로즈 즉흥연주 수업에서 강조되는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의 교육 목표는 즉흥연주 능력 향상을 통해 악보 속에 내재된 움직임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년간 달크로즈 교사양성 과정을 통해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지도하면서 이미 즉흥연주를 다양하게 경험한 작곡 전공자, 재즈연주자들도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를 즉흥연주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흥

1) 달크로즈 교사양성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는 ‘이동 동작(걷기, 뛰기, 느리게 걷기, 스킵, 스윙, 점프)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즉흥연주,’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고 그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즉흥연주’ 등이 포함된다.

2) Robert M. Abramson, “Dalcroze-Based Improvis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66/5 (1980), p. 62.

연주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는 모두에게 생소하고 도전이 되는 활동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을 제시한 후 그 곡에 담긴 움직임에 관련된 특징적 모티브를 모방하면서 즉흥연주를 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쉽게 끌어내곤 하였다. 듀레(Madeleine Duret)는 “즉흥연주는 대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음악이다”³⁾라고 하였고,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는 “나는 가끔 곡을 만들 때 선대 음악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리듬장치들을 차용한다”⁴⁾고 하였다. 청과 썰먼드(Brian Chung & Dennis Thurmond) 역시 “즉흥연주는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보다 친숙한 패턴이나 프레이즈를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⁵⁾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시곡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즉흥연주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주어진 예시곡을 연주하고 분석하면서 움직임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음악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그 결과 즉흥연주의 실마리를 찾게 된 학생들은 악곡에서 나타난 패턴을 모방하고 변형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고, 즉흥연주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자연스럽게 즉흥연주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표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음악의 내용을 묘사하는 표제음악은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 즉흥연주 수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표제음악 중에서도 동물관련 표제음악은 동물마다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음악에 담고 있어 움직임과 즉흥연주를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물관련 표제음악들에 사용된 다양한 음악 요소들을 분석하여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즉흥연주 수업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3) Madeleine Duret, “L'improvisation dans la pédagogie Jaques-Dalcroze,” *Le Rythme* (2011), p. 16.

4)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 미셸 루트번스타인(Robert Root-Bernstein & Michèle Root-Bernstein) / 박종성 옮김, 『생각의 탄생』(*Sparks of Genius*) (서울: 에코의 서재, 2007), 294쪽.

5) Brian Chung & Dennis Thurmond, *Improvisation at the Piano: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Classically Trained Pianist* (Los Angeles: Alfred Publishing Co., Inc., 2007), p. 81.

II. 동물관련 표제음악 분석과 적용

달크로즈 수업에서는 목소리,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등 피아노 외의 악기를 이용한 즉흥연주도 활용된다. 하지만 달크로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피아노 즉흥연주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 즉흥연주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피아노작품 중에서 발췌된 동물관련 표제음악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초급·중급·고급 레벨에서 다양한 동물관련 표제음악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중급 수준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초급 수준의 작품들은 학생들이 가능한 테크닉을 기반으로 작품이 작곡되다 보니 움직임의 특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 그리고 고급 수준의 작품은 즉흥연주 자료로 제시될 경우 난이도가 너무 높아 활용 가능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내외에서 중급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총 5종의 피아노교재를 선정하여 그 교재들에 수록된 동물관련 표제음악에 초점을 맞춰 연구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 피아니스트』,⁶⁾ *Anthology of Keyboard Music by Maurice Hinson*,⁷⁾ *Anthology of Piano Music by Denes Agay*,⁸⁾ *Bärenreiter Piano Album*,⁹⁾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¹⁰⁾에 수록된 동물관련 표제음악이 분석재료로 선별되었다.

조사 대상 교재들에 수록된 동물관련 표제음악은 <표 1>과 같은 분포로 나타났다.

-
- 6) 『더 피아니스트』는 한국의 뮤직트리 출판사에서 발간된 교재로 김강희, 이순정, 공누이, 형희전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 4권으로 이루어진 중급교재로 각 권마다 바로크, 고전, 낭만, 그리고 현대 시대의 작품들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 7) *Anthology of Keyboard Music by Maurice Hinson*은 미국의 알프레드 출판사에서 발간된 교재로 모리스 힌슨에 의해 만들어졌다. 바로크, 고전, 낭만, 인상주의, 현대로 구분되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급에서 고급 초반 학생들을 위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 8) *Anthology of Piano Music by Denes Agay*는 미국의 요크타운뮤직 프레스에서 발간된 교재로 데니스 아게이에 의해 만들어졌다. 바로크, 고전, 낭만, 그리고 20세기로 구분되어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급에서 고급 초반 학생들을 위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 9) *Bärenreiter Piano Album*은 독일의 베렌라이터 출판사에서 발간된 교재로 에레니(Adél Erényi), 퇴펠(Michael Töpel)에 의해 만들어졌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초, 현대로 구분되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급에서 고급 초반 학생들을 위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 10)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는 캐나다의 프레드릭헤리스 출판사에서 발간된 교재이고 캐나다 왕립음악원의 급수시험을 위한 지정교재로 만들어졌다. 바로크에서 현대를 망라하는 다양한 작곡가들에 의한 초급 후반에서 고급 수준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연주교재 11권, 연습곡 10권, 워크북 8권, 교사지침서로 구성되어 있고 연주교재와 연습곡에 수록된 작품들은 음반으로도 제작되어 있다.

<표 1> 조사대상교재들에 수록된 동물관련 표제음악 분포

구분	표제 및 수록 작품집 명	작곡가	작품출처 ¹¹⁾	
강아지	Funny Puppy, <i>In My Dreams</i>	Anne Crosby(1968-)	CR3	
	<i>Playful Puppy, Soda Pop and Other Delights</i>	Linda Niamath(1939-)	CPR	
강아지/고양이	Dog-Cat Polka, <i>Piano Pastels</i>	George Antheil(1900-1959)	DA20	
곰	Bear Dance, <i>Sonatina</i> Sz. 55 No.2	Bela Bartok(1881-1945)	DA20	
	Bear Dance, 10 Easy Pieces Sz. 39 No. 10	Bela Bartok(1881-1945)	MH20	
	Of a Tailor and a Bear, <i>Forgotten Fairy Tales</i> Op. 4 No. 2	Edward MacDowell(1860-1908)	MHR	
	The Bronze Bear, <i>Sketches from Hans Anderson</i>	Yvonne Adair(1897-)	CR1	
거북이	The Tired Turtle Express, <i>Comics & Card Tricks</i>	Christine Donkin(1976-)	CPR	
닭	Chicken Talk, <i>Piano Studies in Pop</i>	Mike Schoenmehl(1957-)	CE5	
	Cackle(Le Caquet)	Jean François Dandrieu(1682-1738)	DAB	
	The Hen: Cuban Dance	Louis Moreau Gottschalk(1829-1869)	MHR	
	The Rooster Crows, <i>Images</i>	Lajos Papp(1935-)	CR4	
모기	Le Moucheron(The Gnat)	François Couperin(1668-1733)	MHB	
벼룩	The Flea(La Puce), <i>Album pour Tout-Petits</i>	Mélanie Hélène Bonis(1858-1937)	CR1	
불가사리	Starfish at Night, <i>Freddie the Frog</i>	Anne Crosby(1968-)	CPR	
뱀	The Snake	Renée Christopher(1955-)	CR1	
새	공작새	The White Peacock, <i>Roman Sketches</i> Op. 7 No. 1	Charles Griffes(1884-1920)	MH20
	나이팅게일	Le Rossignol-en-Amour(Nightingale in Love)	François Couperin(1668-1733)	DAB
	독수리	To Fly Like an Eagle, <i>Freddie the Frog</i>	Anne Crosby(1968-)	CPR
	들새관찰	Birding, <i>Away!</i>	Stephen Chatman(1950-)	CPR
	딱따구리	The Woodpecker, <i>Twelve Easy and Melodious Studies</i> Op. 68 No.3	Jean-Louis Streabbog(1835-1886)	P1
	빼꾸기	Le Coucou	Louis-Claude Daquin(1694-1772)	CR9 P2 MHB
		Les Coucous Bénévoles(The Kindly Cuckoos)	François Couperin(1668-1733)	BB
	슬픈새	Oiseaux Tristes(Sad Birds), <i>Miroirs</i>	Maurice Ravel(1875-1937)	MHI
	예언새	Vogel als Prophet(The Prophet Bird), <i>Waldszenen</i> Op. 82 No.7	Robert Schumann(1810-1856)	MHR BR DAR
	종달새	Song of the Lark, <i>Children's Album</i> Op.39 No. 22	Peter Ilyitch Tchaikovsky(1840-1893)	DAR
	할미새	La Bergeronnette(Wagtail), <i>Études faciles</i> Op. 100 No. 11	Johann-Friedrich Burgmüller(1806-1874)	CE4

구분	표제 및 수록 작품집 명	작곡가	작품출처 ¹¹⁾
생쥐	The Mouse in the Coal Bin	Clifford Poole(1916-2003)	CR2
악어	Crocodile Teeth, <i>I'm Not Scared</i>	Nancy Telfer(1950-)	CE2
	“Croc” the Curmudgeon, <i>Animal Fair</i>	Pierre Gallant(1950-)	CR1
	The Alligator, <i>The Bestiary</i>	Veronika Krausas(1963-)	CR1
용	The Sleeping Dragon, <i>I'm Not Scared</i>	Nancy Telfer(1950-)	CR3
원숭이	Monkeys in the Tree, <i>Meet Canadian Composers at the Piano</i>	Boris Berlin(1907-2001)	CR4
잠자리	Dance of the Dragonflies, <i>The Little Folks: Op.76 No.7</i>	Eduard Rohde(1828-1883)	CE5
	Dragon Fly, <i>Lyric Preludes in Romantic Style</i>	William Gillock(1917-1993)	CE4
	Dragonfly Scherzo, <i>In the Mermaid's Garden</i>	Anne Crosby(1968-)	CE5
캥거루	Kangaroos, <i>The Bestiary</i>	Veronika Krausas(1963-)	CE2
파리	The Little Fly, <i>Die Kleine Fliege</i>	Jenő Takács(1902-2005)	CE5
펭귄	Penguins, <i>A Zoo for You</i>	Linda Niamath(1939-)	CR2
호랑이	Paper Tigers, <i>Animal Fair</i>	Pierre Gallant(1950-)	CE1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종의 피아노 교재에서 28종류의 동물을 소재로 한 39곡의 작품이 발견되었고 ‘새’에 관련된 음악이 11곡으로 가장 많았다.

엘린(Joy Yelin)은 “음악개념과 뉴앙스는 ‘즉흥연주를 위한 요리책’에 기록된 ‘재료’이다”¹²⁾라고 말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악곡 분석은 작곡가들이 특정 동물의 움직임 표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한 재료, 즉 음악개념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분석을 위한 상세요목은 리듬적 요소(리듬, 박자), 선율적 요소(음계, 음정, 화성, 음역), 그 외 표현적 요소(아티큘레이션, 셈여림, 프레이즈, 템포)로 구분하였고, 분석 내용은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의 재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작품 출처는 다음과 같이 알파벳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Celebration Series Preparatory Piano Repertoire (CP), *Celebration Series Piano Repertoire* 1, 2, 3, 4, 9 (CR1, CR2, CR3, CR4, CR9), *The Pianist* 1, 2 (P1, P2), *Anthology of Baroque Keyboard Music by Maurice Hinson* (MHB), *Anthology of Romantic Piano Music by Maurice Hinson* (MHR), *Anthology of Impressionistic Piano Music by Maurice Hinson* (MHI), *Anthology of 20th Century Piano Music by Maurice Hinson* (MH20), *Bärenreiter Baroque Piano Album: Baroque* (BB), *Bärenreiter Piano Album: Romantic* (BR), *An Anthology of Piano Music by Denes Agay: the Baroque Period* (DAB), *An Anthology of Piano Music by Denes Agay: the Romantic Period* (DAR), *An Anthology of Piano Music by Denes Agay: the Twentieth Century* (DAT).

12) Joy Yelin, *Recipes for Improvisation: Keyboard Games for Pianists of All Ages* (New York: Musical Mosaics, 1989), p. iv.

1. 동물관련 표제음악 분석

(1) 동물관련 표제음악에서 발견된 리듬적 요소 분석

가. 리듬

달크로즈는 “특정 리듬패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움직임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¹³⁾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가 지속적으로 제시될 때와 ♪♪가 연속적으로 나열될 때 상상되는 움직임은 매우 다르다. 니아마스¹⁴⁾는 ‘펭귄’에서 왼손에 ♩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걷는 동작을 연상할 수 있게 하였고, 크로스비는 ‘즐거운 강아지’에서 왼손에 ♪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강아지들이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작곡가들은 새, 벌, 파리, 잠자리 등 비행하는 동물을 표현할 때 ♪♪♪가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패시지를 즐겨 사용하였다. 타카치의 ‘작은 파리,’ 질록의 ‘잠자리 비행’은 ♪♪♪ 패턴을 사용해서 비행하는 동물의 움직임을 담고 있는 좋은 예시곡이다.

한편, 리듬의 조합에 따라 움직임의 형태는 변화되고 이로 인해 요구되는 에너지의 레벨도 달라진다. <악보 1>에서 제시된 그리프스의 ‘하얀 공작새’는 각 마디마다 리듬의 조합이 변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특히 마디 3은 마디 4보다 리듬이 더 잘게 쪼개져 있어 더 빈번한 날갯짓이 연상되고 마디 4에서는 큰 동작으로 날개를 짓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마디 4의 ♩는 마디 3의 ♪보다 음가가 길어지면서 에너지레벨이 상승하여 보다 무거운 날갯짓이 연상된다. 크리스토퍼는 ‘뱀’에서 <악보 2>와 같이 4분음표와 8분음표의 조합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뱀의 움직임을 긴장감 있게 묘사하였는데, 각 리듬패턴마다 상상되는 움직임과 에너지강도가 다르다. 또한 4분음표가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에 비해 8분음표가 연속적으로 제시될 때 보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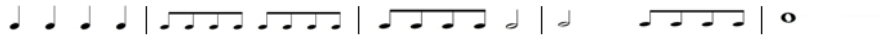
13) Elsa Findlay, *Rhythm and Movement: Applications of Dalcroze Eurhythmics* (Florida: Summy-Birchard Inc., 1971), p. 16.

14) <표 1>에서 작곡가의 생몰년도와 원명을 표기하였으므로 본문에서는 한글로만 표기하겠다.

<악보 1> 그리프스(Charles Griffes) ‘하얀 공작새’(The White Peacock) 1-4마디



<악보 2> 크리스토퍼(Renée Christopher) ‘뱀’(The Snake)에서 사용된 리듬패턴



또한 특정 리듬패턴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모방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파프는 ‘수탉울음소리’에서 리듬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수탉의 울음소리를 모방하였고, ‘삐꾸기’를 주제로 한 표제음악에서 작곡가들은 처음에 제시한 리듬패턴(다캥 ‘삐꾸기’ < >, 쿠프랭 ‘삐꾸기’ < >)을 곡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차트만은 ‘들새관찰’에서 5종류의 새 울음소리를 <악보 3>과 같이 리듬으로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악보 3> 차트만(Stephen Chatman) ‘들새관찰’(Birding)에서 사용된 리듬패턴



경우에 따라 작곡가들은 지시어를 통해 리듬과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니아마스는 ‘즐거운 강아지’에서 ‘tail wagging’이라고 표기한 후 왼손과 오른손에서 리듬을 제시함으로써 강아지의 꼬리 흔드는 모습을 표현했다. 던킨도 ‘피곤한 거북 열차’에서 종지 부분에서 ‘exhausted’라고 표기하고 에 페르마타 표시를 한 후 로 끝을 맺어 피곤에 지친 거북이가 녹초가 되어 나뭇그라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이러한 지시어 없이 다양한 리듬들이 제시된다. 리듬의 반복을 통해 기본적인 움직임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리듬의 확대·축소를 통해 움직임은 변형된다. 리듬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기본재료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 박자

핀들레이(Elsa Findlay)는 “음악에서 박자는 악센트에 의해 인식된다”¹⁵⁾고 하였다. 악센트의 간격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가 매우 달라지므로 움직임에 잘 어울리는 악센트의 선택이 요구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박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걷기 동작을 표현하는 데 3/4박자가 사용되면 두 발로 직립 보행하는 인간의 걷기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작곡가들은 표제에서 묘사된 동물의 동작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박자를 선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자가 바뀔 때는 움직임의 변화를 피하는 작곡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 크로스비는 ‘즐거운 강아지’에서 4/4박자에서 ♪♪♪♪를 3마디에 걸쳐 반복하다가 4번째 마디에서 7/8박자로 박자를 바꾼다. 이때 ♪♪♪♪ 패턴을 제시하면서 3+4의 조합을 만들어 악센트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데 이러한 악센트의 위치 변화를 통해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진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¹⁶⁾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박자의 제시는 새로운 움직임의 출현을 기대하게 하고 긴장감을 높여 주는 수단이 된다. 갈란트는 ‘심술궂은 악어’에서 6/8박자 안에서 ♪♪♪♪를 ♪♪♪♪와 같이 리듬의 조합에 변화를 주면서 악센트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변경시켜 예측 불가능한 심술궂은 악어의 움직임을 묘사했다. 6/8와 3/4박자가 번갈아 나타나는 리듬의 조합을 통해 표제에서 드러난 악어의 캐릭터에 부합된 이미지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다.

작곡가들은 박자의 변화를 통해 특정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텔퍼는 ABA 형식으로 이루어진 ‘잠자는 용’에서 4/4박자로 이루어진 A부분에 이어 ‘dreaming’이라는 지시어로 시작하는 3/4박자의 B부분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과 꿈을 오고가는 장면을 연출해내었다. 크라우사스는 ‘악어’에서 6/4 | 7/4 | 4/4 | 7/4 | 8/4 | 6/4 | 7/4 | 8/4 | 2/4 | 4/4 | 5/4 | 6/4 | 4/4 | 로 거의 매 마디마다 박자를 바꾸면서 악센트 위치를 바꾸었는데 이렇게 변박자를 사용함으로써 불현듯 악어가 다가오는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크로스비 역시 ‘잠자리 스케르초’에서 10/8, 8/8, 5/8박자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변박자를 적용하고 ‘impulsively’라는 지시어를 제시하였는데, 10/8은 3+3+4/8, 8/8은 3+3+2/8, 5/8은 3+2/8의 형태로 불규칙박을 적용함으로써 고요하게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모습이 아닌 좌충우돌 충동적으로 날아다니는 잠자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15) Elsa Findlay, *Rhythm and Movement: Applications of Dalcroze Eurhythmics*, p. 26.


16) Cathy Albergo, Reid Alexander & Marvin Blickenstaff,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Handbook for Teachers* (Ontari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2008), p. 7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박자는 동작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고, 악센트의 위치에 따라 그 동작의 기본적인 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변형된다.

(2) 동물관련 표제음악에서 발견된 선율적 요소 분석

가. 음계

음계의 선택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게 조성된다. 크로스비의 ‘밤의 불가사리’는 온음계를 기초로 작곡되었는데 여유 있는 템포에서 온음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선율은 별모양의 불가사리가 밤바다에서 신비롭게 움직이는 장면을 잘 묘사해준다. 보니스가 작곡한 ‘벼룩’의 B부분에서는 반음계의 선율에 기초한 좁은 음정간격의 진행에 의해 벼룩의 기어가는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표현된다.

크리스토퍼의 ‘뱀’은 라단조 음계의 증2도 음정(시 b-도#)을 강조하기 위해 조표도 와 같이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단조 선율의 사용으로 뱀의 기어가는 모습이 한층 이국적으로 표현된다. 타카치의 ‘작은 파리’의 경우 오른손은 도리아 선법에서, 왼손은 D \flat 장조에서 진행되는데 이렇게 복조로 선율이 진행됨으로써 생기는 불협화음은 파리가 바쁘게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를 실감나게 재현한다. 또한 버르토크의 ‘곰의 춤’은 왼손에서 ‘레’ 음이 계속 오스티나토로 제시되고 오른손에서는 F#장조의 코드들이 *f*의 셈여림으로 제시되면서 곰의 위협적인 모습이 선명하게 표현된다.

한편, 형식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조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다캥의 ‘빠꾸기’는 B부분에서 다른 음악적 요소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조성이 E단조에서 G장조로 바뀌어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냄으로써 변화된 움직임을 연상할 수 있게 해준다. 쿠프랭의 ‘모기’ 역시 B \flat - g - B \flat 으로 조성이 변하면서 ABA' 형식이 잘 드러나고 상상되는 움직임도 변화된다.

예상치 못한 음계 진행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더 강조되기도 하는데, 니야마스의 ‘펭귄’은 에올리아 선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 패턴이 나올 때마다 반음계가 사용되어 리듬의 특징을 더 부각시킨다. 크로스비의 ‘즐거운 강아지’의 경우에도 C장조에서 선율이 진행되다가 박자가 변하거나 프레이즈가 마무리될 때 흥미로운 음악적 진행을 위해 복조를 사용하거나 검은 건반만을 사용한 오음음계를 기초로 한 선율을 제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음색을 자아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움직임을 연상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작곡가들은 상이한 음계의 적용함으로써 음색의 변화의 변화를 일으켜 움직임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야기의 반전을 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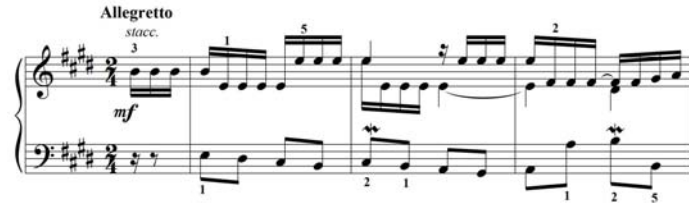
나. 음정

각 음정은 고유의 음색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작곡가들이 특정 동물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하는 음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삐꾸기를 소재로 한 음악에서 작곡가들은 ‘삐꾸’ 소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3도 하행 음정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맥도웰은 ‘재단사와 꿈’의 마디 16에서 ‘growlingly’라고 표시하고 왼손과 오른손에서 옥타브 간격으로 반음계 하행 선율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선율이 꿈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연상하게 한다.

또한 특정 음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동물의 캐릭터가 효과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크라우사스는 ‘캥거루’를 단2도 음정만을 사용해서 작곡하였는데, 단2도의 날카로운 음색은 캥거루의 뛰어다니는 모습과 절묘하게 어울린다. 스트레아복의 ‘딱따구리’에서는 반복음이 즐겨 사용되었는데 이는 날카롭고 단단한 부리로 나무를 쪼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준다. 당드리의 역시 닭의 울음소리를 묘사한 표제 음악 ‘꼬꼬댁’에서 반복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닭이 모이를 쪼며 꼬꼬댁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악보 4).

<악보 4>를 살펴보면 반복음이 제시된 후에 예측 불가능한 음정으로 도약한 후 다시 반복음이 제시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선율 진행을 통해 닭이 모이를 쫓아 이리저리로 이동하는 모습이 연상되고,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쉐넬은 그의 작품 ‘닭의 수다’에서 E단조의 으뜸음인 ‘미’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다양한 단2도 음정을 <악보 5>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배열하였다. 이러한 도약 음정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토닉 악센트(tonic accent)를 유발하고 사용된 음정 간격에 따라 긴장의 정도가 변화되어 닭이 모이를 쪼는 다양한 모습이 연출된다.

<악보 4> 당드리외(Jean François Dandrieu) ‘꼬꼬덕’(Cackle) 1-3마디



<악보 5> 쉐멜(Mike Schoenmehl) ‘닭의 수다’(Chicken Talk)에서 사용된 도약 음정의 예



반복음이 선호된 닭, 딱따구리와는 반대로 음정 간격이 넓은 진행이 선호되는 동물도 있었다. 버르토크는 ‘곰의 춤’에서 왼손 반주를 <악보 6>과 같이 7도, 10도, 12도 간격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약 진행은 곰의 무거운 걸음걸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유사한 예로 크라우사스의 ‘악어’의 경우 전체 15마디 중 13마디가 옥타브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옥타브 간격으로 음정이 진행되면서 거대한 악어의 등장이 상상되고 긴장감을 조성한다.

<악보 6> 버르토크(Bela Bartok) ‘곰의 춤’(Bear Dance) 1-4마디에서 사용된 왼손 반주 형태



대조적인 음정의 사용은 한 곡 안에서 움직임의 변화를 상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니야마스는 ‘펭귄’에서 <악보 7>과 같이 5도 음정과 8도 음정이 번갈아 나타나는 오스티나토 패턴을 통해 펭귄의 뒹뒹 걸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스티나토 패턴이 돌연 증4도 음정 간격의 반음계 진행으로 바뀌면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연상된다.

<악보 7> 니아마스(Linda Niamath) ‘펭귄’(Penguins)에서 사용된 음정의 예



따라서 음정의 변화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고 음색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상이한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각 음정은 그 음정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음색과 캐릭터가 있고, 동물의 특징을 잘 살려주는 적절한 음정의 배합은 동물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화성

크로스비는 ‘즐거운 강아지’에서 I, IV, V의 장화음을 주로 쓰면서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는 강아지를 연상할 수 있게 해 준다. 반대로 애드에어의 ‘칭동 꿈’에서는 단3화음과 감화음이 주로 사용되면서 꿈의 목직한 모습이 묘사된다. 이렇게 사용된 화음의 종류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 그리고 연상되는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진다.

또한 화성 리듬의 단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차별화된 움직임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부르크뮐러의 ‘할미새’는 ♩ ♩ ♩ ♩ 로 화성리듬이 진행되면서 새가 날개를 작게 혹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악보 8> 부르크뮐러(Johann-Friedrich Burgmüller) ‘할미새’(Wagtail) 7-10마디



작곡가들은 분산화음과 밀집화음을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움직임의 변화를 피하기도 하는데, 니아미스의 ‘즐거운 강아지’에서는 동일한 화음을 A부분에서는 분산화음으로 B부분에서는 밀집화음의 형태로 제시한다. 오른손에서 동일한 선율이 진행되는데

불구하고 왼손의 화음 형태에 따라 움직임은 매우 다르게 연상되고, 구별된 화음패턴의 적용은 형식 구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화음은 악곡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재료로 사용되며 화음변화의 간격, 화음의 연주 형태에 따라 동일한 화성 진행 안에서도 움직임의 성질은 변화된다.

라. 음역

같은 선율이라도 음역에 따라 움직임이 가지는 에너지는 매우 다르게 다가온다. 많은 작곡가들이 공중을 나는 새, 잠자리, 파리 등을 표현할 때 높은 음역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악어, 곰, 뱀, 거북이 등의 동물을 표현할 때는 낮은 음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차트만은 ‘들새 관찰’에서 모두 높은음자리표만을 사용하여 선율을 제시하였고, 크라우사스는 ‘악어’에서 낮은음자리표에서만 선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악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음역을 줄기차게 유지하지는 않았고, 악곡을 흥미롭게 진행시키고 다른 움직임과 분위기를 끌어내기 위해 음역 사용에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크로스비의 ‘독수리처럼 날기’는 새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낮은음자리표에서 제시된 주제 모티브가 세 옥타브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독수리가 땅에서부터 날아오르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묘사하였고, 텔퍼의 ‘악어 이빨’의 경우에도 동일한 선율을 한 옥타브 위에서 제시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형식의 대조를 피하면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보니스의 ‘벼룩’에서처럼 형식이 바뀔 때 따라 대조적인 음역이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보니스는 B부분에서는 높은음자리표에서만 선율을 제시함으로써 벼룩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A부분에서는 높은음자리표와 낮은음자리표를 오가며 등장하는 선율선을 통해 벼룩이 사방으로 천방지축 점프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각 동물의 움직임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음역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지루한 음악전개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음역의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흥미롭게 음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3) 동물관련 표제음악에서 발견된 표현적 요소 분석

가. 아티큘레이션

아브람슨은 “박(beat)은 튕기기(flick), 가볍게 두드리기(dab), 누르기(press), 끌어당기기(pull), 비틀기(twist), 찰싹 때리기(slap), 주먹으로 치기(punch), 미끄러지기(glide), 떠다니기(float)와 같이 다양한 동작으로 표현되고 이런 구별된 동작들에 기초해서 다른 성질로 표현되는 소리를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한다”¹⁷⁾고 하였다. 작곡가들은 동작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치인 아티큘레이션의 사용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버르토크는 ‘곰의 춤’에서 거대하고 위협적인 곰이 쿵쿵거리며 걷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2분음표에 ‘sf’와 ‘molto marcato’를 표기하여 무거운 터치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였다. 반대로 그리프스는 ‘하얀 공작새’에서 레가토 표시를 곡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p’의 섹여림을 제시함으로써 떠다니듯 부드러운 터치로 연주할 것을 지시하였다.

크라우사스는 ‘앵거루’에서 앵거루의 뛰어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곡 전반적으로 스타카토를 표기하여 날카롭고 가벼운 터치로 연주할 것을 명시하였고, 프레이즈가 끝날 때는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동작을 멈춘 모습을 연상시키는 테누토 표시를 하여 대조적인 터치의 사용을 유도하였다. 텔퍼는 ‘악어 이빨’에서 날카로운 악어 이빨의 느낌을 묘사하기 위해 스타카토 표기를 주로 사용하였고, 당드리되는 ‘꼬꼬댁’에서 곡의 시작부분에 ‘stacc.’라고 표기하여 날카로운 스타카토터치로 닭의 움직임을 표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반대로 슈만의 ‘예언새,’ 크로스비의 ‘독수리처럼 날기,’ 타카치의 ‘작은 파리’ 등은 미끄러지듯 날아다니는 날개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곡 전반에 걸쳐 레가토 표기를 주로 사용하였고 유연하고 가벼운 터치로 연주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부르크뮐러의 ‘할미새’는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아티큘레이션을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두 개의 대비되는 동작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마디 3부터는 섹여림에 변화를 줌으로써 동일한 리듬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레벨이 바뀌어 아티큘레이션이 서서히 변화되도록 유도한다(악보 8참조).

따라서 아티큘레이션은 동물의 특징적 움직임을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으며 표현 과정에서 섬세한 연주테크닉이 요구된다.

17) Robert M. Abramson, *Feel It!: Rhythm Games for All* (Florida: Warner Bros. Publications, 1998), p. 60.

나. 썸여림


새, 잠자리, 벌 등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을 묘사할 때 작곡가들은 움직임의 대조를 피하기 위하여 악곡 중간에 *mf*, *f* 등의 썸여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p* 를 즐겨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질록은 ‘잠자리 비행’에서 *mp*, *p*, *pp* 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잠자리의 거의 미동 없는 날갯짓을 잘 드러낸다. 반대로 곰, 악어, 사자 등 덩치가 크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동물의 경우 *f*, *ff* 가 주로 사용된다.

한편,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썸여림의 변화’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크라우사스는 ‘악어’에서 “Do not *cresc.* or *decresc.* between dynamic levels”¹⁸⁾라고 명시하여 썸여림의 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pp* 혹은 *p*로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f*, *ff* 를 연주하여야 하는 썸여림의 구성은 악어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성한다.

또한 썸여림의 변화를 통해 형식이 명확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갈란트의 ‘심술궂은 악어’에서 A부분은 스물스물 악어가 나타나는 모습, B부분은 악어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위로 나와서 요동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작곡가는 A부분에서는 *p*로, B부분은 *f*로 썸여림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썸여림의 변화는 대조적인 아티큘레이션과 리듬의 사용이 더해져서 움직임의 차이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썸여림의 제시를 통해 움직임의 전반적인 캐릭터가 정해지고 갑작스런 썸여림의 변화는 움직임의 극명한 대비, 그리고 점차적인 썸여림의 변화는 움직임의 단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 프레이즈

스트레아복은 ‘딱따구리’에서 동일한 리듬패턴()을 2마디 단위로 제시하면서 프레이즈를 구분하였고, 이렇게 프레이즈가 바뀔 때마다 딱따구리의 움직임의 변화가 연상된다. ‘딱따구리’의 경우 리듬패턴이 프레이즈를 구분하는 단서로 사용되었다면, 크로스비의 ‘잠자리 스케르초’는 동일한 박자의 조합(10/8|8/8|10/8|8/8)이 반복되면서 프레이즈가 2마디씩 구분되는 예를 보여 준다. 폴은 ‘석탄상자 속의 생쥐’에서 4분

18)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Piano Repertoire Vol. 1* (Ontari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2008), p. 30.

범표를 포함한 리듬패턴(♩ ♩ ♩ ♩ ♩ ♩ ♩ ♩)을 제시하여 프레이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프레이즈는 음악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만들어지고 프레이즈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이 야기된다.

2마디씩 혹은 4마디씩 규칙적 프레이즈로 구성된 곡의 경우 움직임의 방향은 다를지라도 이동 거리가 동일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하지만 크로스비의 ‘즐거운 강아지’처럼 5마디+5마디+4마디+7마디의 불규칙한 프레이즈 배열로 구성된 작품에서는 보다 다양한 이동 거리가 연상된다. 특히 프레이즈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음악적 요소가 제시되면 예상되는 움직임은 더 변화무쌍해진다. 예를 들어 니아마스는 ‘펭귄’에서 2마디+2마디+3마디+2마디+2마디+4마디+2마디+2마디+4마디의 구조로 프레이즈를 구성하였는데,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프레이즈마다 오른손의 주요 리듬 모티브가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표 2>에서 제시된 주요 리듬 모티브를 포함한 프레이즈가 빠짐없이 제시되면 한 부분이 완성되고, 이러한 프레이즈 조합의 결과로 AA' A" 형식이 갖춰지게 된다.

<표 2> 니아마스(Linda Niamath) ‘펭귄’(Penguins)에서 사용된 주요 리듬 모티브와 상상되는 움직임

마디	주요 리듬 모티브	상상되는 움직임
1-2마디/10-11마디/18-19마디	♩ ♩ .	펭귄이 뒹뒹 걸어가는 모습
3-4마디/13-14마디/20-21마디	♩ ♩ ♩ ♩ .	펭귄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 모습
5-7마디/22-25마디	♩ ♩	펭귄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모습

퍼거슨(Howard Ferguson)은 “프레이즈는 연설문에서의 문장들에 비유될 수 있다¹⁹⁾”고 하였는데, 각 프레이즈는 연설문의 문장들이 기승전결의 짜임새를 갖추기 위해 조합되듯 반복과 대조를 통해 발전하면서 형식미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프레이즈의 변화는 움직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을 구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음악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나가는 중요 역할을 한다.

프레이즈는 다양한 음악요소와 결합함으로써 형식구분을 위한 단서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프레이즈의 구성에 따라 움직임이 반복적, 혹은 대조적으로 상상되면서 작곡가가 작품을 통해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하워드 퍼거슨(Howard Ferguson) / 현재희 옮김, 『건반음악의 해석』 (Keyboard Interpretation) (서울: 음악춘추사, 1998), 40쪽.

라. 템포

분석 대상으로 선별된 피아노 작품들을 살펴보면 메트로놈 표기나 이탈리아어 템포 지시 등을 통해 템포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동물의 특징이나 움직임 묘사하는 지시어들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움직임과 템포를 연계해서 상상하는 것을 도와주고 연주자의 템포 선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갈란트의 ‘심술궂은 악어’에서는 ‘crotchety, with a bite’라는 지시어를 제시함으로써 심술궂고 변덕스러운 악어의 움직임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프스의 ‘하얀 공작새’에서는 ‘languishing’이라는 지시어 때문에 늙어서 쇠약한 공작새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된다. 니아미스의 ‘펭귄’의 경우 ‘waddling’이라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펭귄의 뒤뚱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한편, 폴의 ‘석탄 상자 속의 생쥐’에서는 B부분에서 ‘cantabile’라는 지시어를 제시함으로써 A부분과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리듬과 아티큘레이션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템포 변화가 유도된다. 이러한 템포 변화에 의해 석탄 상자 속에서 점프를 하면서 탈출을 시도하던 생쥐가 지쳐서 잠깐 휴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모차르트는 “올바른 템포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²⁰⁾고 하였는데, 표제, 그리고 움직임·분위기를 묘사하는 지시어는 $\text{템포}=\text{속도의 등식}$ 이 아닌 $\text{템포}=\text{속도}+\text{분위기}+\text{움직임}+\dots$ 의 등식으로 확장해서 사고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므로 작곡가들은 동물의 움직임을 묘사할 때 단순히 움직임의 속도만을 고려하기보다 동물의 상태나 움직임에 대한 상상을 근거로 선율·리듬·화성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음악의 구성요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템포를 연주자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선택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동물관련 표제음악의 적용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즉흥연주 교육과 달크로즈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즉흥연주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의 목표가 ‘즉흥연주 능력습득’이 아닌 ‘음악적으로 정제된 소리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습득’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선율을 즉흥연주하더라도 음악적으로 완성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시된다. 따라서 달크

20) Elsa Findlay, *Rhythm and Movement: Applications of Dalcroze Eurhythmics*, p. 5.

로즈 즉흥연주 수업시간에는 각각의 선율이 가지는 뉘앙스를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아노를 떠나 움직임으로 선율을 표현하는 과정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수업이 그룹으로 이루어지고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방관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를 관찰하면서 연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여 움직이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루트번스타인은 “기억, 지식, 상상, 느낌 등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닌 전체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이해된다 [...] 우리는 이것을 몸과 마음, 감각과 분별력을 이어주는 ‘통합적 이해’(unified understanding)라고 부른다”²¹⁾고 하였다. 달크로즈 즉흥연주 수업에서 행해지는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는 단순히 즉흥연주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루트번스타인이 강조하는 ‘통합적 이해’를 경험하는 과정이며 교사 혹은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영감을 주고받으며 즉흥연주 능력은 물론이고 좋은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가 좋은 연주자로서의 자질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달크로즈 교사양성 과정에서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경험한 교사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²²⁾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 대부분이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는 달크로즈 교수법을 경험하기 전에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매우 생소한 작업이었다고 답변했다. W교사의 경우 “움직임에 대한 이해나 상상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아노로 즉흥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답변했고, C교사는 “건반에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구현해 내어야 하는데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본 경험이 없어 난감했고, 비 조성음계를 사용한 즉흥연주를 할 때는 그 음계가 낯설어서 즉흥연주를 하고도 제대로 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았다”고 하였다. 인터뷰 대상 중 유일하게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가 어렵지 않았다고 답변한 L교사는 대학에서의 전공이 음악이 아니었고, 음악이 좋아 록밴드 활동, 연극의 효과음악연주, 그리고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효과음악 녹음작업 등 일반적인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음악 경험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 작업을 통

21)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 미셸 루트번스타인(Robert Root-Bernstein & Michèle Root-Bernstein) / 박종성 옮김, 『생각의 탄생』, 51쪽.

22) 본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로 다양한 달크로즈 교육기관에서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경험한 달크로즈국제공인자격증 소지자들(2명의 라이선스(License) 소지자 / 8명의 써티피카트(Certificate) 소지자)과의 서면 인터뷰가 행해졌고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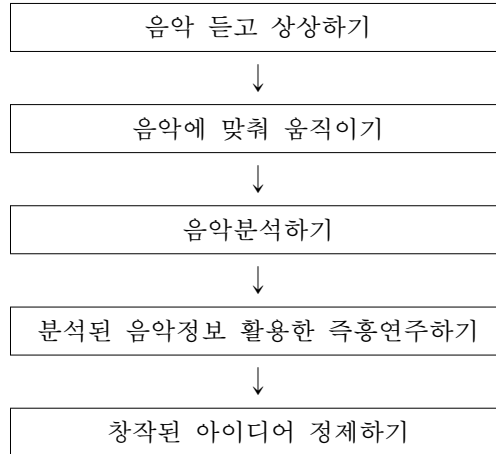
해 세밀한 음악적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더불어 리듬감이 향상되었다”라고 하였다. 특히 K교사는 대학에서 재즈화성, 건반화성 등의 수업을 통해 즉흥연주를 다양하게 접했지만, “초창기 움직임에 위한 즉흥연주를 할 때 그 움직임에 적합한 음악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고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작곡전공으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하면서 즉흥연주를 경험한 K교사는 움직임을 즉흥연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즐겨 연주하지 않았던 “다양한 리듬과 박자, 선율 재료들을 사용한 즉흥연주를 시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는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적 재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연주를 경청하게 되고, 즉흥연주 과정을 통해 음악창작 능력은 물론이고 연주 기량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움직임을 즉흥연주로 표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막연한 주문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 수업에서 동물 관련 표제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즉흥연주에 대해 느끼는 막연함을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과정을 통해 동물관련 표제음악들은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유도하여 다양한 움직임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동물의 캐릭터에 따라 음악의 여러 요소들이 선별되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관련 표제음악을 활용한 즉흥연주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²³⁾

23) <표 3>에서 제시된 절차는 1999년부터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즉흥연주수업을 하면서 축적된 경험에 근거해서 요약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절차를 수업에서 순서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연령, 전공, 직업에 따라 이 모든 단계가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서에 상관없이 한 단계에 초점을 맞춰 몇 주차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표 3>에서 제시된 ‘음악 듣고 상상하기,’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음악분석하기,’ ‘분석된 음악정보 활용한 즉흥연주하기,’ ‘창작된 아이디어 정제하기’의 항목들 중 한 항목도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 수업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표 3> 동물관련 표제음악을 활용한 즉흥연주 수업과정



(1) 음악 듣고 상상하기:

교사가 연주해주는 표제음악을 들으면서 관련 동물 상상하고 토의하기

표제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파악하여 표제를 유추해 내는 과정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속에 담긴 움직임과 작곡가가 전달하려는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여,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토의 과정에서 표제가 아닌 다른 동물이 거론되는 것도 긍정적인 과정이며 거론된 동물과 표제로 제시된 동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토론하면서 구별된 특징을 찾아내는 것은 즉흥연주에 매우 도움이 된다.

(2)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교사가 연주해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어울리는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기

음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청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몸으로 생각하는 과정이다. 표제로 제시된 동물의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자유로운 동작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과정은 음악과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테크닉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스트레이아복의 ‘딱따구리’에서 반복되는 음정을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첫 음을 순간적으로 민 후 후속음들을 손목의 긴장을 풀고 가벼운 터치로 연주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손목과 팔이 긴장된 상태로 연주하여 연타음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실패하곤 한다. 그런데 놀

랍게도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움직임 표현해 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재현해 낸다.

따라서 현란한 움직임을 구사하지 않더라도 동물의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신체의 일부를 사용해서 몸이 음악에 반응하는 활동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저절로 가능한 움직임의 어휘도 다양해지고, 시간·공간·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도 점차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잠자리의 움직임을 모방할 때와 생쥐의 움직임을 모방할 때 가능한 움직임은 매우 다르다. 또한 강아지가 화가 났을 때와 기분이 좋을 때의 움직임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동물 음악에 맞춰 그 움직임을 상상하면서 움직이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동작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표현력 있는 즉흥연주를 할 수 있는 자질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고 피아노 연습을 통해 해결되지 않던 테크닉을 피아노를 떠나 움직임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

(3) 음악분석하기:

악보를 보면서 음악의 주요 특징 분석하기

리듬, 박자, 음계, 음정, 화성, 음역, 아티큘레이션, 셈여림, 프레이즈, 템포 등 악보에서 발견되는 주요 음악개념을 분석하고 어떠한 음악적 요소가 동물의 특정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는지 고찰해본다. (2)번에서 제시된 활동이 청각적인 정보를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라면, (3)번에서 제시되는 활동은 시각적인 정보를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관련 표제음악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작곡가들이 특정 동물의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패턴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패턴들은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할 때 좋은 소재로 활용된다.

동물관련 표제음악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은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티브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음악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움직임과 연결시켜 음악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보는 것이다. 악보를 분석하면서 그 음악에 부합되는 움직임을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음악과 움직임의 미묘한 상관관계를 깨닫게 해주고 즉흥연주를 할 때 섬세한 음악적 표현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4) 분석된 음악정보 활용한 즉흥연주하기:

동물의 움직임이 효과적으로 묘사된 패턴을 기초로 즉흥연주하기

제시된 패턴에서 발견되는 음악적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즉흥연주를 해 본다. 한편, 제시된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요소만 변형해서 즉흥연주를 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된다.

예를 들어 ‘꿈의 행진’을 ‘피곤한 꿈’으로 표제를 바꿔 즉흥연주를 하게 되면 ‘꿈’의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된 음악적 요소에 ‘행진’과 ‘피곤함’이라는 상반된 분위기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즉흥연주를 할 때 새로운 음악적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

즉흥연주를 시도하기 전 어떤 음악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음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즉흥연주를 할 때 음악적인 구상 없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열하곤 한다. 하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를 나열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완성된 음악을 창작할 수 없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이 만들어 내는 소리에 집중하고, 반복과 대조를 적절히 사용하여 짜임새 있는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아주 단순한 패턴을 제공하고 그 패턴에 새로운 음악적 요소를 하나씩 덧입혀 즉흥연주의 어휘가 서서히 축적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훈련이 반복되면 즉흥연주를 할 수 있는 어휘가 자연스럽게 저장되어 다양한 스타일로 즉흥연주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구조적 체계를 갖춘 즉흥연주를 경험하면서 작곡가로서의 능력도 키우게 된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악상을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창작된 음악 정제(精製)하기:

**움직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음악에서 정확하고 음악적으로 표현하여
음악과 움직임이 일치되도록 만들기**

주어진 패턴을 발전시켜 즉흥연주를 한 후 동물의 움직임의 변화가 음악으로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지 자신의 즉흥연주를 성찰해 보고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달크로즈 수업에서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할 때 교사나 동료가 즉흥연주에 맞춰 움직이고 연주자는 즉흥연주를 하는 동시에 타인의 움직임을

관찰하게 된다. 이 과정을 마치면 교사나 동료는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동안 느낀 점을 말하고, 연주자도 자신이 연주하면서 어색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음악과 움직임이 얼마나 일치되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다. 이 때 음악의 각 요소를 대입하여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토론 주제로 다루어진다. 피어스(Alexandra Pierce)는 “기악 및 성악 연주자는 레퍼토리에서 요구되는 손가락, 혀, 호흡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하는 움직임 전문가라 할 수 있다”²⁴⁾고 하였는데, 이렇게 음악과 움직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성찰을 하는 과정은 움직임에 내포된 미세한 뉘앙스의 변화를 즉흥연주로 적절하게 구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움직임과 음악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즉흥연주를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예민한 청음능력과 표현능력을 갖춘 좋은 연주자로서의 자질도 갖추게 된다.

Ⅲ. 나가는 글

달크로즈는 음악교육에서 즉흥연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달크로즈 교사양성 과정에서 움직임을 즉흥연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즉흥연주 수업에서 예제 곡이 제시되면, 학생들은 주어진 작품을 연주하고 분석하면서 다양한 작곡기법을 익히게 되고 모방을 통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된다. 특히 표제음악은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상상하는 것을 도와주고, 표제음악 중에서도 동물관련 표제음악은 여러 동물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음악에 담고 있어 움직임과 즉흥연주를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급 수준의 피아노 교재에 수록된 동물관련 표제를 가진 작품들을 발췌한 후, 작곡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작곡 기법을 분석하여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의 재료를 탐색하였다. 분석을 위해 『더 피아니스트』, *Anthology of Keyboard Music by Maurice Hinson*, *Anthology of Piano Music by Denes Agay,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Bärenreiter Piano Album* 등의 교재가 사용되었다. 총 5종의 교재에서 28종류의 동물을 소재로 한 39곡의 작품이 발견되었고 ‘새’에 관련된 음악이 11곡으로 가장 많았다. 악곡 분석은 리듬, 박자, 음계, 음정, 화성, 음역, 아티큘레이션, 셈여림, 프레이즈, 템포로 상세

24) Alexandra Pierce, *Deepening Musical Performance through Movem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Embodied Interpret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p. xv.

요목을 구별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동물의 캐릭터에 따라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이 선별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음악 요소로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은 충분치 않고 여러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결합할 때 그 동물의 캐릭터가 흥미롭게 음악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된 요소들을 활용한 즉흥연주 활동은 1) 음악 듣고 상상하기, 2)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3) 음악분석하기, 4) 분석된 음악정보 활용한 즉흥연주하기, 5) 창작된 음악 정제하기의 과정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어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선생님께서 독립해서 독자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 동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그 동물의 특징적 움직임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 후 즉흥연주를 하게 하는 독특한 수업 과정을 거치면서 음악적인 소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몸의 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셋째, 대근육과 소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근육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자연스럽게 테크닉이 향상되고 섬세하고 표현력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넷째, 무엇보다 자신이 상상하는 움직임 혹은 경험한 움직임을 즉흥연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소리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 청음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움직임을 위한 즉흥연주를 경험하는 것은 즉흥연주 능력 향상뿐 아니라 훌륭한 연주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달크로즈 즉흥연주 수업뿐 아니라, 화성진행에 기초한 반주붙이기에 치우친 즉흥연주 교육에서 벗어나 흥미롭게 즉흥연주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의 피아노 레슨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아노 교습을 위한 작품 창작에 관심 있는 피아노 교사 혹은 작곡가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순간적인 움직임이 적절한 음악으로 덧입혀질 때 더욱 생동감 있게 변하는 애니메이션·영화·광고음악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표제음악의 소재로 사용된 다른 주제들에 대한 후속 연구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즉흥연주 수업을 위한 소재가 더 풍성하게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주 제 어 동물관련 표제음악, 즉흥연주, 달크로즈

Animal-Related Program Music, Movement, Improvisation, Dalcroze

참고문헌

- 루트번스타인, 로버트 & 미셸 (Root-Bernstein, Robert & Michèle) / 박종성 옮김. 『생각의 탄생』 (*Sparks of Genius*). 서울: 에코의 서재, 2007.
- 퍼거슨, 하워드 (Ferguson, Howard) / 현재희 옮김. 『건반음악의 해석』(*Keyboard Interpretation*). 서울: 음악춘추사, 1998.
- Abramson, Robert M. “Dalcroze-Based Improvis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66/5 (1980), pp. 62-68.
- _____. *Feel It!: Rhythm Games for All*. Florida: Warner Bros. Publications, 1998.
- Agay, Denes.(ed.) *Anthology of Piano Music: The Baroque Period*. New York: Yorktown Music Press, Inc., 1971.
- _____.(ed.) *Anthology of Piano Music: The Classical Period*. New York: Yorktown Music Press, Inc., 1971.
- _____.(ed.) *Anthology of Piano Music: The Romantic Period*. New York: Yorktown Music Press, Inc., 1971.
- _____.(ed.) *Anthology of Piano Music: The 20th Century Period*. New York: Yorktown Music Press, Inc., 1983.
- Albergo, Cathy, Alexander, Reid, & Blickenstaff, Marvin.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Handbook for Teachers*. Ontari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2008.
- Chung, Brian & Thurmond, Dennis. *Improvisation at the Piano: A Systematic Approach for the Classically Trained Pianist*. Los Angeles: Alfred Publishing Co., Inc., 2007.
- Duret, Madeleine. “L’improvisation dans la Pédagogie Jaques-Dalcroze.” *Le Rythme* (2011), pp.15-17.
- Erényi, Adél. *Bärenreiter Piano Album: Baroque*. Kassel: Bärenreiter, 2003.
- Findlay, Elsa. *Rhythm and Movement: Applications of Dalcroze Eurhythmics*. Florida: Summy-Birchard Inc., 1971.
- Gallant, Pierre. *Animal Fair*. Ontari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2003.
- Hinson, Maurice.(ed.) *Anthology of Baroque Keyboard Music: Late Intermediate to Early Advanced Works by 42 Composers*. Los Angeles: Alfred Publishing Co., Inc., 2006.
- _____.(ed.) *Anthology of Classical Piano Music: Intermediate to Early Advanced Works*

- by 36 Composers. Los Angeles: Alfred Publishing Co., Inc., 2000.
- _____.(ed.) *Anthology of Romantic Piano Music*. Los Angeles: Alfred Publishing Co., Inc., 2003.
- _____.(ed.) *Anthology of 20th Century Piano Music*. Los Angeles: Alfred Publishing Co., Inc., 2006.
- Pierce, Alexandra. *Deepening Musical Performance through Moveme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Embodied Interpret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 Poe, John Robert. *Please Feed The Animals*. Florida: The F. J. H. Music Company Inc., 2001.
- The Frederick Harris Music.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Piano Repertoire Preparatory Level 1-Level 10*. Ontari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2008.
- The Frederick Harris Music. *Celebration Series Perspectives: Piano Etudes Level 1-Level 10*. Ontario: The Frederick Harris Music Co., Limited, 2008.
- Töpel, Annette & Töpel, Michael. *Bärenreiter Piano Album: Vienna Classic*. Kassel: Bärenreiter, 2004.
- Töpel, Michael. *Bärenreiter Piano Album: Romantic*. Kassel: Bärenreiter, 1992.
- _____. *Bärenreiter Piano Album: Early 20th Century*. Kassel: Bärenreiter, 2009.
- _____. *Bärenreiter Piano Album: Contemporary Composers*. Kassel: Bärenreiter, 2009.
- Yelin, Joy. *Recipes for Improvisation: Keyboard Games for Pianists of All Ages*. New York: Musical Mosaics, 1989.

Abstract

Teaching Improvisation for Movements Utilizing Animal-Related Program Music

Ryu, Seungji

Dalcroze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mprovisation in music education, and the Dalcroze teacher training courses place great importance on the cultivation of the abilities to express movements through improvisation. Students can learn various composition techniques, and easily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hrough imitation. Animal-related program music reflects the characteristic movements of animals in music and offers good materials to learn improvisation and how to effectively connect them with movements.

This study thus extracted the pieces of animal-related programs in piano teaching materials at the intermediate level, analyzed the common composition techniques among composers, and explored the materials of improvisation for movements. The piec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hythm, meter, scale, interval, harmony, register, articulation, dynamics, phrase, and tempo.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 variety of musical elements were selected and used according to the animal characters. Improvisation activities with the analyzed elements were applied in the following processes: 1) appreciating and creating imagery to match the music, 2) moving to the music, 3) analyzing the music, 4) improvising based on the analyzed music information, and 5) purifying the created music.

Going through those processes, the students experienced the following changes. First, they had profound reflection on the various elements of music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improvisation for the movements. This raised their understanding level of the music and developed their ability to interpret music autonomously. Secondly, they took interest in the uses of the body to make musical sounds after receiving the lesson with unique processes of imagining animal movements, expressing their characteristic movements with their entire body, and improvising. Third, they improved their motor skills, naturally improved their techniques, and made preparations for a sophisticated and expressive performance after the process of conveying animal movements through the various uses of gross and fine-motor skills. And finally, they improved their music dictation skills by training to concentrate and listen to sounds in the process of expressing the movements they imagined or experienced through improvisation. It thus seemed that experiencing improvisation for movements helped to enhance not only improvisation skills but also excellent performance skill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creative works of

piano teachers or composers who are interested in the creation of piano practice pieces as well as the field of music education and are utilized in the creation of animation, movies, and advertisement music. The study will hopefully be followed by future research on more diverse topics adapted to this area so that improvisation through program music will be utilized more actively across various fields.

부록. 현대작곡가들의 동물관련 표제음악²⁵⁾

작곡가	작품집명	출판사명
Anne Crosby	<i>Freddie the Frog</i>	Frederick Harris Music Company
Antoni Cofalik, Romuald Twardowski	<i>Im Zoo</i>	Bärenreiter
Carol Matz	<i>My Friends at the Zoo</i>	The F. J. H. Music Company Inc.
Catherine Rollin	<i>The Bean Bag Zoo</i>	Alfred Music Publishing Co., Inc.
Cynthia Clarke	<i>Zippity Zoo Days</i>	Alfred Music Publishing Co., Inc.
Dennis Alexander	<i>Animal Magic</i>	Alfred Music Publishing Co., Inc.
John Robert Poe	<i>Animal Antics</i>	Carl Fischer
	<i>Meanwhile, Back in the Jungle</i>	Carl Fischer
	<i>Please Feed the Animals</i>	The F. J. H. Music Company Inc.
Judith R. Strickland	<i>Animal Suite</i>	The F. J. H. Music Company Inc.
Linda Niamath	<i>A Zoo for You</i>	Frederick Harris Music Company
Lorna Paterson	<i>Pianimals</i>	Frederick Harris Music Company
	<i>Safari Suite</i>	
Magaret Goldston	<i>Lions and Friends</i>	Alfred Music Publishing Co., Inc.
Pierre Gallant	<i>Animal Fair</i>	Frederick Harris Music Company
Veronika Krausas	<i>The Bestiary</i>	Frederick Harris Music Company
Victoria Sabo	<i>Micro Meowings</i>	The Willis Music Company

25)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악곡들은 중급수준의 피아노작품을 시대별로 모아 편집한 교재들에서 발췌된 것이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분석에 사용된 많은 작품들이 해당 작곡가가 동물을 소재로 작곡한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펭귄’은 니아마스의 *A Zoo For You*, ‘악어’는 크라우사스의 *The Bestiary*에서 발췌된 것이었다. 이에 분석에서 사용된 작품들이 수록된 동물관련표제음악작품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